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 공고

도교육청, 내일부터 접수... 공개시험·학교장 추천 병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2019년도 전라북도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인력풀 전형을 공개시험제도와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어·영어·수학·체육·중등(특수)·초등(특수) 6과목을 공개전

형 시험으로 치르고 일반사회 외 12과목(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초등교육·보건·전문상담) 총 13과목은 학교장(기관장) 평가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해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재한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명예 퇴직교직원을 등재 제외대상으로 명시

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공립 초·중등 임용시험 1차 및 전북 사립학교 연합회 주관 임용시험 1차 시험 이상 합격자를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재대상자로 선정해 학교(기관)에서 우수한 기간제교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원서는 12월 3일~10일까지 8일간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시험(전공)은 2020년 1월 18일 실시하며,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한다. 합격자는 2020년 1월 23일 발표한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는 2020년 1월 28일~31일까지 4일간 1층 행정자료를 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초본,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제출 및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코너에 본인이 직접 등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완주교육지원청, 학교-마을 교육과정 원탁협의회 개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최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0학년도 학교-마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원탁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탁협의회에는 학교-마을 교육과정 참여기관 대표 및 강사 123명(44기관), 교원 170명(50교교)이 참여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완주군청과의 교육협력체를 통해 따뜻한 학교, 실현하는 학교, 즐거운 학교, 마을 학교의 4개 영역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마을학교 과제인 학교-마을 교육과정은 2016년부터 시작돼 4년째 운영되고 있다.

학교-마을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것이 격언이 아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숙자 교육장은 "학교-마을 교육과정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꿈을 찾아 키우는 완주교육의 비전에 맞게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지난 4년의 과정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된다"며, "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마을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교육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탁협의회에 참석한 교원과 마을기관 관계자들은 "학교는 지역의 교육자원의 도움으로 교육과정이 풍성해지고, 마을 강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학교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완주=이종복 기자



전북대 한옥인력양성사업단이 실습 결과물인 목조주택을 부안지역 어려운 이웃에 기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허투루 쓰여서는 안 돼”

전북대 한옥인력양성사업단, 부안지역민에 주택 기부 훈훈한 감동

전북대학교 한옥인력양성사업단(센터장 남해경)은 교육생들의 실습 결과물인 목조주택을 부안지역 어려운 이웃에 기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 목조주택 건축목공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이 8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실습 차원에서 만들었고, 이를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안시해로타리클럽(회장 김정)이 주택 내부 인테리어를 맡았다. 새 집의 주인공은 보안면 우동리의 박모 씨(62세). 박 씨는 독거노인으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

림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말 열린 준공식에는 남해경 센터장과 한근호 부안부군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박 씨의 입주를 축하했다. 한편, 전북대 한옥인력양성사업단에서는 매년 4~5개의 한옥과정과 목조건축과정을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실습 결과물이 소모품임에도 버리지 않고 전사나 체험학습 교보재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최종 산물인 실물 목조건축을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기부하고 있다. 남해경 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시설물이나 기자재 구입, 교육과정 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교육생들이 만든 실습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전북대가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실습 결과물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 부안시해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전북대 한옥인력양성사업단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역민을 위한 일이라면 로타리클럽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기자동차산업 발전 방향 모색한다

군산대 새중원, 중소기업 육성 전략 포럼 개최... 경제 파급효과 진단

군산대학교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이하 새중원)은 지난 29일 대학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중소기업 육성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군산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군산경제 파급효과와 진단을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써, 주요 관계 인사와 기관장들, 전기자동차 관련 임원 및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윤동욱 군산시 부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광병선 군산대 총장, 중소기업인 등 2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군산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군산 전기자동차 사업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영철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은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군산이 국내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박병길 군산대학교 가족회사협의회 회장(동아하이테크 대표)은 “새중원이 전기자동차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은 한국GM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등으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라북도청과 군산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군산에는 이미 2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청사진이 구체화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 신항만, 공항과 같은 복합 물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완성차 업체, 부품협력업체, 연구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인적 인프라 역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합의했으므로 안정적인 합리적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미래포럼 개최... 인재 양성 논의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최근 공과대학 8호관에서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2019 지역특화 신재생에너지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여 명의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향후 방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방기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단지 기본계획'을,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이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준수 차장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청 이성호 과장과 모창호 마투이엔지 대표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대학교가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우리 지역의 중점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LINC+사업단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커리어 로드맵 경진대회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재학생을 대상으로 커리어 로드맵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에 앞서 1~3학년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사전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미래 커리어 가치관에 따라 캔버스 작성, 자신만의 스토리라인 구성 실습을 하고, PPT제작, 스피치 스킬 교육으로 커리어 역량을 강화했다. 경진대회 결과 봉황상을 수상한 1학

년 김례인 학생은 “나만의 커리어 스토리텔링으로 PPT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년별 계획과 더불어 인생계획까지 설계하는 기회가 됐다”며, “팀원들 간에 정보 공유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는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정부의 주요 청년 일자리정책과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정양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